



# 문화매일신문



제1559호

2024 / 4 / 2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북도.. 엄마들과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기!

### 자생단체 '노는 엄마들', '로리마을 디자인단', '그로우 그루' 사례 공유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가 가족 친화 기업에 이어 육아 현장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지난 22일 가족친화기업인 (주)남경엔지니어링에 이은 2번째 현장 간담회다.

3월 29일 안성령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과 직원들은 청도군 주민 주도형 돌봄공동체 회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노는 엄마들', '다로리마을 디자인단', '그로우 그루' 등은 농촌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돌봄 사각지대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품앗이 형태로 공동 육아를 운영하는 모임이다.

'노는 엄마들'과 '다로리마을 디자인단'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행안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경북도 주관 '소규모 마을 디자인단 운영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



졌으며, '그로우 그루'는 육아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2024년 자생적으로 결성했다.

이들은 단순히 품앗이 방식의 아이 돌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봉사·행사·교육 등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응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사업비로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2자녀를 둔 엄마 A씨는 "육아에 대

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 돌봄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돌봄 공동체가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육아 공간 확보, 돌봄 거점 시설 설치, 돌봄·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함께 건의했다.

안성령 본부장은 "돌봄공동체는 온 마을이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돌보며 육아 부담을 나누는 21세기 현대적인 공동육아 체계이다."며 "도민이 체감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지역에 잘 정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5월까지 시도민, 병원, 기업, 돌봄센터 등 테마별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한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동네의원 통해 마음건강돌봄 활성화 나선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026.3.31.까지 2년 연장



부산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변경 전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의사 상담 또는 선별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198곳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발견한 위험군의 적기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사업기간 내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범사업의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명칭과 함께 2년 연장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 참여 의향 확인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과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치료는 우선 권고하던 방식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선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센터의 역할을 강화했다.

사전 사업 안내를 통해 환자에게는 취업, 학업 등에 대한 악영향이나 진료 기록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우선 연계해 더욱 내실 있는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의 의사가 있거나 긴급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가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특히, 올해는 구·군 단위 사업 협업체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참여 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연계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의원은 의원 소재지 구·군 보건소로 우편, 팩스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권 내 위치한 동네의원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발굴하는 체계가 구축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사회적 고립,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우울과 불안 수준이 상승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지역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위험군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시민 정신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경기도 김동연, ASM 대표 만나 "AI지식산업벨트 관련 협력 시너지 기대"

### 김 지사 "AI지식산업벨트 계획 발표. 협력할 일 많을 것, 시너지 효과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며칠 전에 AI 지식산업벨트(북수원 테크노벨

리)를 발표했다. 그 안에 반도체를 비롯해 AI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는데 앞으로 ASM과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대표는 "90년대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그간 지원에 감사하다.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행운이다"라며 "AI 중심의 산업벨트를 만든다는 비전에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도 AI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히chem 엠사드(Hichem M'Saad) 에이에스엠 차기 대표 내정자,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오니 알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 등도 배석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둔 세계 반도체 장비 선도기업이다. 전 세계 16개국에 4천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으며,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2천90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폴베르하겐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을 만나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내 투

자를 독려했다. 이후 에이에스엠은 한국 투자를 결정하고 화성시에 2023년 5월 반도체 원자 증착 박막 플라즈마 코팅기술(ALD) 장비 연구 및 제조 복합시설을 착공했다. 2025년 5월에 완공될 시설은 에이에스엠 글로벌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 시설이 결합된 시설로, 소재와 부품의 상당수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대원 336명이 경기도소방학교에 체류하는 동안 오니 알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과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네덜란드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한다

도내 18개 시군 신규 특사경 대상 현장수사 기법 등 실무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3.29,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도내 특별사법경찰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전문화된 행정 분야에 대해 단속, 조사, 송치 등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리 도는 '23.12월 기준 식품, 환경, 산림, 해양수산 등 20여개 분야에 533명(도 35, 시군 498)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수사서류의 작성, 피의자 신문 기법, 송치요령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경력 33년의 춘천지방검찰청 전문수사관을 초빙하여 추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사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담당자간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교환 등으로 업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련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전제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으로 인사발령 등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됐던 신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하여 도내 민생분야 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전남도, 지방시대 성공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도전

### 첨단전략·청정에너지·문화콘텐츠 3개 지구 6개 산업 신청

전라남도는 '첨단전략산업(서부권)', '청정에너지(동부권)', '문화콘텐츠(연계권)' 등 3개 지구를 구성, 지방시대 성공모델 창출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한 면적 200만 평 중 131만 평을 올해 우선 신청하고, 3개 지구 확장성과 신 산업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시작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지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어 후보지에 대해 입지, 수요기업, 산업현황 등 사전 조사를 하는 등 전남

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기회발전특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통해 최종 3개 지구, 6개 산업을 확정했다. 27개 앵커기업과 1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기업 유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확정한 6개 산업은 ▲해상풍력(목포·해남 16만 평, 2개사) ▲반도체 및 항공정비(무안 9만 평, 8개사) ▲데이터센터(해남 20만 평, SPC) ▲광양만권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47만 평, 8개사) ▲수소산업 클러스터(여수 34만 평, 5개사) ▲문화콘텐츠(순천 5만 평, 3개사)다.

전남도는 발굴한 6개 산업을 기반으로 권역별로 에너지원, 산업(생산), 물류를 연결한 밸류체인을 구성해 3개 지구를 구성했다.

서부권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생산 및 데이터센터를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수출하며, 동부권은 수소를 기반으로 이차전지를 육성해 광양항을 통해 수출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양 지역을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기업지원을 위해 세제(취득·재산세), 재정(투자유치 보조금·특별지원금 등), 정주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도 고심 중이다. 특히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투자 환경 제공을 위해 기업과 협력, 규제 특례를 지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장한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시대를 견인할 성공 모델이 되도록 지난 1년간 준비에 힘을 다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모든 지구가 특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충남도, 영화·드라마 촬영일 수 '전국 3위' 쾌거

충남도가 지난 한 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촬영지원일 수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한국 영화 산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지역별 촬영지원일 수 부문에서 서울(798일), 부산(728일) 다음으로 많은 462일로 집계됐다.

충남에 이어 전주 454일, 제주 408일, 인천 358일, 경기 327일, 강원 311

일, 전남 168일, 충북(제천, 청주) 161일, 대전 105일, 경남 9일 순이었다.

통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에서 촬영을 지원한 작품이 기준이며, 작품 편수는 총 769편, 촬영지원일 수는 4289일이다.

지역별 촬영 지원일 수는 촬영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를 통해 촬영 인력이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창출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역 경제의 선순

환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충남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편수가 감소되는 추세에서도 2020년 117일, 2021년 162일, 2022년 207일 이어 지난해 462일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34건과 비교해도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도는 산하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을 통해 도내 영화·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촬영의 로케이션 섭외와 촬영을 위한 지자체 협업을 지원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대형 영상 콘텐츠 작품의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도내 촬영명소 홍보, 국제영화제 등 홍보관 운영 및 제작지원 사업 안내, 버추얼 로케이션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정근/기자





#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업무 효율화 위한 팀 리빌딩 교육 등, 직원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리빌딩, 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MBTI 특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한울원자력본부와 국립해양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콘텐트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배한철 의장 등 도의원이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항상된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를 해결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의회와 소통 노력' 의회 업무 역량 강화 연수

## 경남교육청 직원들 "의회 업무 체계, 의정 활동 이해 큰 도움"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본청 공강홀에서 경상남도의회와 직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 본청에 전입한 직원 약 40명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남도의회 현황 ▲의회 관련 법령 ▲의정 활동 요구 자료 작성 요령 ▲의회와의 소통 방안 등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경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김선옥 주무관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경남교육청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 업무와 의정 활동의 이해도를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연수를 통해 경남도의회 업무체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기자



#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늘봄학교 재능기부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에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6일 해운대구 해원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후속 주자로 지목받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훌라후프를 활용한 릴레이와 게임 등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며 일일 교사로 나섰다.

또,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교실 운영 현황·인력·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챌린지에 참여해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교육위원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하며, 다음 주자로 박수자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지난 6일 하윤수 교육감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후속 주자로 참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 김원구·박이안 씨와 프로스포츠 구단 치어리더팀원 등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기업 유치 및 산학협력 업무협약식 참석

의정부시의회는 29일 오전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정부시-(주)시지바이오-경민IT고-의정부공립고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기업인 (주)시지바이오 유치와 경민IT고등학교-의정부공립고등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혁신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정희 의장,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주)시지바이오 대표, 경민IT고교 교장, 의정부공립고교 교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정희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

최만식/기자



#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3월 28일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복지국,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아픈아이돌봄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픈 아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해 시흥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동일/기자

#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실종사건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보성군의회는 한기섭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복귀를 촉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예방·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가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유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조례 제정을 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 나주시의회, 경제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28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정기, 이재남 의원 공동발의

나주시의회는 28일 제25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제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의결과 경제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이재남 의원은 "경제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전무하다"며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선 지능인도 적절한 조



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 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023년 4월 발의된 「경제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4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장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등산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향인 '음성군'에 2번째 고향사랑기부

“어릴 적 생각 많이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의 무극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했다.

김 지사는 “음성군은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과 옛날 생각이 많이난다”며 “이렇게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 사랑기부까지 할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조병욱 군수는 “항상 고향인 음성군



을 생각해 주시고 가져주시는 김동연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음성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음성군 금왕을 무극리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 동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작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 (가칭)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 논의

도교육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당소에서 경기도교육청 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파주 (가칭)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

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형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 관내 갈현초·능안초의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학교 균형 발전과 체감 가능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더 필요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 60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민생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협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소상공인 157,243개 업체(3조 3천 353억원)와 중소기업 6,114개 업체(7천387억원)에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 올해는 소상공인 134,700개 업체(3조 3천억원)와 중소기업 5,300개 업체(7천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

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감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 필요

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의원, 종사자 및 보호자 의견 반영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맞춤형 인권친화기관인증 조례 제정 논의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



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제도 확립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제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

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인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관인회합 피포티스, 축화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출.마.트.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관악사·고수경연대회, 주모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일)  
홍지면 용원리 일림산 일원

**2024 한국음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5. 4.(토) ~ 5. 5.(일)  
울포술밭해수욕장  
2개 종목 12개부(음티미스트 10, 토미스트 2)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일)  
농협마주차장(보성역 옆)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



# 이천시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의 보금자리 사업' 진행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9일 신둔면사무소에서 화재가구 신(신둔면 수하리)에게 '행복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화재피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은 지난 1월에 신둔면 수하리 빌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키우고 있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은 가구로,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태원 민간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엄명옥 신둔면장은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신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 사업'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주거 환경을 위한 청소 및 집수리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주거복지 1번지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든든 보금자리 마련에 최선

집다운 집으로 주거사다리 놓아... 지난해 총 37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과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 이주·정착 지원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3,126가구, 고양시 기준 6,983여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빌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총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활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 가구당 이사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절차가 힘들어 주거 상황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탐색 과정에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 교실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개소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지난해 민간 협력으로 176가구 집수리... 맞춤형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 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총 17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 2024 한국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수상

'간편 집수리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적극 추진

고양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론,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호응도가 높은 집수리 교육은 지난해 6회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0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보지센터·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지난 2월에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영기/기자

# 여주시, 2024년도 성인문해교육 우리동네 세종배움터 개강

여주시는 2024년도 성인문해교육 우리동네 세종배움터 신규 학습처의 첫 수업을 3월 26일부터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작년보다 8개 학습처가 증가된 총 24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마련된 학습처에서 185명의 학습자가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전부터 학습 중인 학습처 13곳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했고 신규 학습처 11곳은 신규 모집된 7명의 강사 및 신규 학습처의 학습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사회

적 상황 등으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학습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자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거동불편, 학습시설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학습처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 문자해독 능력과 사회적·문화적으로 요망되는 기초생활능력에 대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중에도 뜻깊은 배움의 장에 참여해 주시는 학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주시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신해주시는 강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확 달라진 새빛톡톡 새단장 기념 퀴즈 이벤트 연다

새빛톡톡 마이리더지? 새빛톡톡을 이용해 시정에 참여할 때마다 쌓이는 점수를 말해요.

마이리더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맞춤정보 설정 500점 (최초 1회)
- 시민제안 글 승인 게시 1,000점
- 시민제안 글 반려 시 500점 (1일 최대 2건)
- 수원페이 전환 신청기준 10,000점 **30,000점 이하** (만점 단위 산정) (본거별 최대 3만점 (1회))
- 회원가입 500점 **1,000점** (최초 1회)
- 가입추진 100점 **1,000점**
- 출석체크 50점 **100점** (1일 1회) 과제 로그인 시 적용
- 시민제안 글에 대한 댓글 등록 100점 **200점** (1일 5회, 10여명)
- 설문투표에 대한 응답 100점 **200점**
- 월 적립상한액 5,000점
- 시민제안 글에 대한 공감 등록 50점

마이리더지 적립

- 회원가입 1,000점
- 가입추진 1,000점
- 출석체크 100점
- 댓글 등록 200점
- 시민제안 글 댓글 등록 200점
- 설문투표 응답 200점
- 최초 맞춤 정보 설정 500점

디자인 개선하고 마이리더지 대폭 상향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했다.

자동로그인 기능이 생겨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졌고, '출석체크' 기능을 도입했다.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출석체크를 하면 1일 1회 마이리더지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이리더지는 앱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 글쓰기 버튼은 한결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고, '시민제안' 게시판에 '베스트 댓글'을 신설했다.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마이리더지는 적립액은 대폭 상향했다. 새빛톡톡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추천하면 1000점을 적립해 준다. 마이리더지 월 적립 상한액이 폐지돼 마음껏 적립할 수 있다. 분기별로 최대 3만 점까지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현한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중소기업, 해외 지사 없어도 걱정 뚝!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사·해외 물류 네트워크 참가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성남시가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이하이면서 성남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이다.

시는 해당 기업들의 지사·해외 물류 네트워크 참가비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 및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무역관과 물류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사화 사업은 세계 84개국 129곳에 있는 해외무역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판로 연결 등을 지원한다.

해외 물류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소재한 지역의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과 연계·진행돼 통관·보관·배송·반품·물류 컨설팅 등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5개사 내외에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21개사에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 '용인중앙시장역'으로

용인특례시, 시민 설문·지명위원회 심의 거쳐 지난 1월 역명 변경 고시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이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역'으로 변경됐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驛舍)명이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역'으로 바뀌면서 역명판과 노선도 등을 교체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중앙시장)역'의 역사 이름은 지난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당시 인근의 주요 시설인 '용인종합운동장'과 '용인송담대'를 반영해 정해졌다.

하지만 시가 '용인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용인송담대'도 '용인예술과학대'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상황이 바뀌어 역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용인중앙시장 방문객이라는 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의미를 담아 역 이름을 '용인중앙시장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해 8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7%가 '용인중앙시장역'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중앙시장·용인예과대역'(16.1%), '용인중앙역'(8.1%)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용인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로' 새 역명을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이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용인중앙시장 역명은 모든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에 반영되는 만큼 타 지역 시민들에게 용인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5년 전통을 가진 용인중앙시장은 용인시 유일의 전통시장으로 순대 골목, 떡 골목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2억 5000만원(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 포함)을



투입해 주차 공간 확대, 청년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올 1월에는 중소기업부 주관 '2024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억

4000만원(국비 4억 2000만원 포함)을 들여 용인중앙시장만의 특화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2024년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광주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올해 6년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징수과를 비롯해 초월읍, 곤지암읍,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주요 대상으로 방문하며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

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한다.

또한,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정리보류) 처분을 한다. 정리 보류 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씩 재산 조사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정리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방세환 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 체납관

리 및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체납자 맞춤형 상담을 위해 가가호호 찾아갑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2024년 3월 - 9월 (7개월)

- ▶ 체납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상담
- ▶ 일자리: 구직상담,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 ▶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무한행복 등

광주시 광복로 031-760-4189

# 헤드셋 쓰면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안양시 '메타존' 문 열어

## 게임으로 즐겁게 가상현실 체험 국내 미발매 '애플 비전프로' 체험 가능

다양한 확장현실(XR) 기기를 한 번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안양시에 문을 열었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메타존을 방문하면 ▲최신 확장현실 기기 및 고품질 콘텐츠 ▲안양 소재 메타버스 관련기업 제품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미국에서 출시되고 국내에 아직 판매되지 않아 접하기 어려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Vision Pro)'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애플(Apple)의 비전프로는 공간 컴퓨팅 기능을 탑재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객체를 자연스럽게 겹쳐 보여준다.

고급형의 제품을 쓰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현실의 배경에 나비, 공룡 같은 객체가 눈앞에 실감나게 겹쳐 나타나고, 허공에 팔을 휘두르며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아울러 메타존에서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메타(META)의 혼합현실 헤드셋 '메타퀘스트(META Quest3)'도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다.

고가인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체험은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운영자의 1대1 안내로 진행된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메타존을 시범 운영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해왔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기기를 충분히 체험해 볼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메타존에서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타버스(舊 5G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은 스마트 기기 보유가 어려운 중소 개발사에 테스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안양시가 협력해 구축한 공간이다.

신우용/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 GTX-A 개통식 참석...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가 운영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 간격(14~21분 간격)으로 배차될 예정이다.

GTX-A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로,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수도권 환승 할인과 더불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환급도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 50%, 청소년 10%, 경로 30%, 장애인·유공자 50% 요금 할인 ▲ 주말 기본요금 할인 10% ▲ 6세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이 적용돼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GTX-A 개통에 맞춰 환승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 방안을 마련했다. 동탄역 출입구 인근에 광역버스 8개 노선, 시내버스 17개 노선, 마을버스 18개 노선을 운영해 버

스를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점점·보완했다.

특히, GTX-A 동탄역 막차시간과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H4번 심야버스 운행시간을 기존 22시 10분부터 익일 3시 10분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3시 30분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3월 1일부터는 동탄1·2신도시 DRT(화성특독버) 5대를 증차해 총 20대를 운영 중이며 GTX-A 개통 후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증차 및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추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GTX-A는 소외시간, 가격경쟁력, 정시성 등 기존 대중교통보다 월등하기에 출퇴근 광역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GTX-A 전구간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은 철도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했다.

30일 GTX-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구간을 기존 SRT 이용요금인 7,400원보다 저렴한 4,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약 20분으로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에도 승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역이며, 오는 6월 말에는 용인 구성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 열차를 시작으로 익일 새벽 1시경 마지막 열차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www.yyg.go.kr

#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시회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알리기 첫발

## 오는 4월 1~5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 전시홀에서 홍보부스 운영

부천시가 대한민국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인 심토스(SIMTOS)에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알리기 위한 첫발을 들인다.

부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 전시홀에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이번 전시회에 시의 특화산업인 금형산업 및 로봇산업과 관련성이 깊은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의 첫 홍보장소를 심토스로 정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장(職)·주거(住)·생활(樂) 등 다양한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을 가진 자족도시 구현'이라는 제 3기 신도시의 목적을 달성한 첫 산업단지다. 부천대장지구 서쪽(제1 도시첨단산업단지)과 동쪽(제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부천시는 금형산업과 로봇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며 관련 산업을 선도해 왔지만, 산업융합 부족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산업융합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이곳에 우수하고 가치가 높은 금형·로봇 연관 기업을 유치해 주요

서부수도권 산업벨트의 중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면적: 334,387㎡, 산업시설: 204,890㎡
- 부천대장 공공택지지구
-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면적: 226,167㎡, 산업시설: 131,267㎡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기업과의 상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는 조성되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풍부한 인적자원과 편리한 교통망을 보유한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서부 수도권 교통·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청사진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등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산업단지를

소개하는 홍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라디오·온라인 광고, 기업 대상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동일/기자

판타지아 부천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촉석수림, 외씨배수림
- 영양의 역사: 을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발해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추후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atstow, 한국관광공사



# 전남도,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에 전남 4개소 선정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2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

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4개 핵심사업을 패키지화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연계 지원해 농공단지 외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 4

## 산업부 공모에 보성 미력·무안 일로·강진 마량·진도 고군

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여 원, 도비 27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91억여 원 등 총 306억 원이 투입된다.

보성 미력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안 일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 마량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진도 고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업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9년부터 농공단지 일제 조사를 했다. 관리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농공단지(28개소) 시군에 대해 향후 농공단지 입주 및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현재 64개소 중 59개소의 수립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청년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노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암 대불 국가산단 등 11개소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여수 국가산단 등 4개소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문화·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 국내 최초 하천 수상 퍼레이드 연출

복원된 뱃길 따라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야간 수상 퍼레이드 진행

순천시가 국내 최초 하천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기존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지난해 순천시는 고려초기 순천 동천에 배가 드나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동천 뱃길 복원에 나섰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새롭게 복원된 뱃길을 따라 국가정원과 도심의 양쪽을 아우르는 '정원드림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더해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일원 동·식물을 모티브로 하여 기존 '정원드림호'를 업그레이드했다.

흑두루미, 팽귄, 칠레 등 순천만을 대표하는 동물을 캐릭터화했으며,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화훼와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했다.

수상 퍼레이드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회 운영된다. 퍼레이드 선박에는 실제 관광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한편, 야간



에는 조명 등 화려한 연출을 더해 동천과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정원드림호는 일일 26회 운행될 예정이며, 100% 현장발권으로 진행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았던 정원드림호가 올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며, "주·야간에 진행되는 수상 퍼레이드는 각각 다른 매력을 선보여 국가정원과 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멋진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한전KPS, 나주 영강동 취약가구 아동에 교육용 컴퓨터 20대 지원



나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전KPS가 지역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 영강동은 최근 한전KPS에

## 컴퓨터 없어 온라인 학습권 취약한 아동 위한 나눔

서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교육용 컴퓨터 20대를 후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영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전KPS와 '희망을 전하는 교육용 컴퓨터 나눔' 행사를 갖고 영강초등학교, 영강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컴퓨터 10대를 전달했다.

컴퓨터 지원은 영강동 지사협의 사회공헌사업 제안을 통해 이뤄졌다. 한전KPS는 기존 업무용 컴퓨터를

부품 교체, 오작동 점검, 소프트웨어 갱신 등을 통해 새 제품 다름없는 교육용 컴퓨터로 마련해 지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영강초 6학년 김모 학생은 "그동안 컴퓨터가 없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생겨 인터넷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성경익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미래 꿈나무들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전KPS는 컴퓨터 지원 외에도 매

년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스프링 무릎 보호대, 보행 보조기 등을 지원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공헌 사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임윤식 영강동장은 "꾸준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한전KPS인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유관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진도군, 고군농공단지 환골탈태...86억원 투입

## 아름다운 거리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2027년 완공

진도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패키지 형태로 통합 공모해 복지·문화·편의시설 집적화를 추진한다.

군은 확보한 국비 60억원 포함 총 86억원을 투입, 고군농공단지 내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청년문화센터 등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이를 통해 복합·문화시설을 집적화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군은 기존의 고군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문화·편의 시설로 증축하고 신규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농공단지 내 기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문화센터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취·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고군농공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근린환경개선을 지원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도로·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아

김영진/기자



# 남원시, 상생발전 꽃 피우는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

## 남원시&여주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경기도 여주시가 29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으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교류, 관광자원 활성화,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행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과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공동점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시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인 남원시와 인연을 맺게 되어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류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여주에서 멀리 남원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충우 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대표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양 도시가 소중한 가족이 된 만큼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주시와의 협약으로 남



원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경남 밀양시, 서울 구로구·서초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성남시에 이어 8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문화·경제 중심의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주민 혜택 강화를 통한 관계·생활연구 증대,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협약 체결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함평군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남원시&여주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전남 함평군이 28일 군청 1층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호신 경찰서장, 조인식 3대대장, 김광선 소방서장, 박정애 교육장, 김갑용 우체국장, 강문경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장운식 함평군 재향군인회장, 박주현 도로공사 함평지사장, 김경일 수도센터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군사 태세 평가 및 대비방향 보고, 24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보고, 재난 발생에 따른 각 기관별 대응계획 수립, 함평군 통합방위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3년도 통합방위 태세 추진 성과와 2024년도 추진 방향 보고 등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2024년도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제8332부대3대대에서 발표한 비상사태 발령 시 신속한 통합작전체계



구축 등 상호 공조 체제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접하는 현대 민화의 세계 소개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의 미술 전시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 소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민화뮤지엄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20개 기관에 포함됐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알.알.이.'는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현대 민화 특별전과 연계한 3종 문화교육프로그램(전시해설 프로그램, 전시해설 인력 교육, 체험·창작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타겟층에 맞춘 양질의 문화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객부터 어린이, 외국인까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민화는 어려운 옛 그림'



이라는 편견을 넘어 특별전의 작품들을 전시 해설을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들과 민화 관련 해설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인력교육을 진행해 민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험·창작 워크숍'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전의 현대민화 작품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 및 느낌을 담아 창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민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친밀감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다가오는 5월부터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을 시작해,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 계정을 통해 모집 일정을 공고한다.

참가자 접수, 특별전 일정 등 문의사항은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추효호/기자



### 신안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16개 시군 60여 명 참석, 신안세계김밥페스타 참여 당부

신안군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가 29일 신안군 자은 씨원리조트 톨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신안군을 포함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국내 1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시군 간 소통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부터 활동 해오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23년 결산과 24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8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임원진, 신임 회장을 결정했다.

신안군은 슬로시티 대표 푸드로서 김밥을 지정하여 오는 4월 27일에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 회원 도시로 선정되

어 2018년도 증도면에서 신안군 전역으로 확대 인증을 받았다. 슬로시티 도시의 선구자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친환경세계 보급 및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분해 비닐 사업을 추진 및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위한 전 읍·면 교육 등 군의 전 실과에서 친환경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2024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단 출범

전북자치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28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환경기술지원단과 기술지원 신청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 환경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 출범

환경기술지원사업은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전 진단을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환경전문가를 배치하여 무료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술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전북자치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000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작년에는 중소기업 39개와 신규기업 6개소 등 총 45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백두이앤지 등 6개 사업장이 2억 3백만 원을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환경기술지원단은 박사급 전문가와 함께 도내 대기기업과 중견기업 환경부서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인중 전북환경기술인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높은 질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기술지원을 받게되는 38개 기업은 도내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군산 소재 기업이 8개소로 제일 많고 부안이 6개소, 익산과 정읍, 김제, 완주, 진



안은 각각 4개소씩 신청을 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기계업종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제조업과 식품업계가 각 9개소이며, 지원분야별로는 수질분야가 2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환경기술지원사업과 같이 도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기술지원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완도군, '전남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참가자 모집

### '타이니 하우스 가든' 콘셉트로 30개 참여 정원 조성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30개의 참여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 정원의 주제는 정원 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이 정원을 관람한 후 집에 적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타이니 하우스 가든', 즉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선정했다. 참가 자격은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

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 3팀, 우수 6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하여 5월 3일 페스티벌 개막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 정원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 조성되며, 페스티벌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에서 개최된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열리고 5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전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 정원 페스티벌에 지역뿐만 아니라 정원, 조경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면서 "완도만의 특색있는 아름다움을 알리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과 한국가드너협동조합 누리집에 게시된 '2024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울/기자

완도군에서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참가자를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 보성군, 보성차(茶) 음료 개발 대회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개최

### 서울, 광주, 원주, 대구 4개 지역 예선 거쳐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 본선 무대 펼쳐져!

보성군은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맞이하여 보성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차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 창의적 음료 제조자들이 보성차를 주제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음료를 선보이며, 차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성 티 마스터컵은 보성차를 기본 재료로 3가지 이상의 원·부재료를 혼합(믹싱) 또는 고형(토피нг)에 카페음료를 개발하는 경연대회로 서울과 광주, 원주, 대구 4개 도시에서 예선전을

거쳐 20명의 출품작이 준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펼쳐지며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해 보성 티 마스터컵은 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차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였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성차의 매력과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라며 "보성 티 마스터컵에서 차 소비 촉진 및 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국내 대표 차 음료 개발대회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 티 마스터컵'은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해 오는 ▲4월 13일

서울, ▲4월 14일 광주, ▲4월 20일 원주, ▲4월 21일 대구 예선을 거쳐 4월 27일 서울 롯데타워에서 준결선을 개최하고, 5월 4일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본선을 치른다. 자세한 내용은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누리집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한편, 대회 개최지인 보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성군민들의 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늑차마라톤대회, △전국요트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24 보성 티 마스터 컵

최원영/기자

## 광주광역시 "가족친화경영 전문상담 받으세요"

### 공인노무사 등 맞춤형 지원...희망기업·기관 2일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과 가정, 삶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기관 10곳을 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양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으로, 좋은 직장과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우수기업과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어 기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은 기업·기관에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가족친화 전문인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족친화경영 제도와 설계 관련 맞춤형 상담을 1대 1로 지원한다.

상담은 ▲서류 및 현장 심사대비 상담을 통한 가족친화인증 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도입·설계와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 연계 ▲인사·노무법규에 근거한 취업규칙·직무지침 점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업당 최대 5회까지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난해부터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기

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사·공고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지원 등 총 18개의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으며, 본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선정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24개, 공공기관 2개 등 26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이 가운데 19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 심사에 통과했으며, 현재 광주시는 총 130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2024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관내기업·기관에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4. 4. 2. ~ 11. 29.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준비 (신규·재인증 유효기간 연장)
- ※ 신규인증 준비우대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5회 이내)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전자우편 제출
- isj4078@korea.kr
-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참고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062-613-7984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봄이 찾아온 유달산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2024 유달산 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축제의 핵심콘텐츠로 '봄, 수군 문화'를 선보였는데, 따뜻한 날씨에 유달산의 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수군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명확한 주제와 완성도 높은 축제를 선보였다. 이번 유달산 봄축제의 주제는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으로, 주제에 걸맞는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로 축제의 문

## 목포시 시민 대화합을 이룬 '2024 유달산 봄축제' 성료

### 시대를 초월한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로 화려한 불거리 선사

을 열었다. 판옥선 차량을 제작해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한 이번 퍼레이드에는 22개 동주민 참여단, 어린이집, 해군 3함대, 목포해양대와 시민 및 관광객 참여단, 체전 홍보단 등으로 구성됐다. 축제 퍼레이드는 조선수군과 현대수군, 그리고 목포시민이 함께 모여 수군역사의 본거지인 목포를 담아내고, 시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함께 참여한 시 체육회 등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시는 수군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고자 올해 수군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와 수군무예공연, 수군 병영체험관, 만호 이순신 역사홍보관,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 사랑의 노적 쌓기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즐거움은 물론, 교육적 효과를 더해 가족단위의 관

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노적 쌓기는 이번 축제의 주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적봉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노적봉 앞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마를 엮어 노적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만호수군 무예공연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노적봉 앞마당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놀이도 이루어졌는데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몸으로 함께하면서, 웃음소리 가득한 신명나는 놀이의 장을 열었다. 올해 시는 최초로 행사장 권역을 고하도까지 확장했다. 선착순 사전 접수를 받아 운영한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은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를 연계해 목포시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최유나, 정미애, 신성, 서도밴드와 같은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봄꽃토크 콘서트도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고,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펼쳐진 다양한 불거리와 참여 프로그램

은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최초로 운영한 셔틀버스도 관광객들을 배려한 부분도 돋보였다. 공사 문제 등으로 예년마다 이용해왔던 인근 학교 사용이 어려워지자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시는 이 셔틀버스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유달산 일주도로를 장식한 봄꽃은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개나리와 목련이 봄의 정취를 알렸고, 축제기간 동안 계속 피어난 벚꽃은 축제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유달산 봄축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다"면서 "축제는 목포 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축제 성공을 위해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 건축 문화’라는 비전 제시



경북도는 3월 2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도와 시군, 관계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건축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경상북도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제3차 경상북도 건축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북의 미래 건축 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번 건축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 현황 분석과 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경상북도가 맞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건축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 건축 문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사회적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 공급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제공’을 제안했다.

다양한 세대가 화합하고 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친년 건축 시범 마을 조성’을 경북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공공에서 주도하던 녹색건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친년 건축문화 및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축 교육을 통해 건축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고 미래 건축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북건축 발전에 이바지할 ‘건축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제의했다.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일과 여가 양립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주거이므로 경북의 노후 주택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펼쳤으며, 미래 경북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향후 경상북도는 공청회 토론회 및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경상북도 의회(건설소방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주거문화 혁신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상북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도로 소통정보 제공, 모든 간선도로로 확대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자 선정 완료, 연말 완공 예정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4월부터 본격 구축을 시작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시설에 접목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하며,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돼 구간별 소요시간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이 대표적 서비스이다.

대구광역시의 20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고 보조 예산 6.8억 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억 원과 대구시 자체 예산 14.2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긴급공사, 사고, 낙하물 등의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확대,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즉시 알림 기능 개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체계 고도화 등이다.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카메라가 교통사고,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찰, 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도로 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기 구축한 신천대로의 상하교-달서교 구간과 연결되는 서대구IC 인근에 추가 설치해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도로가 침수돼 신천동로 등의 상습 침수구간에 차량 진입이 통제될 경우, 운전자들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대구시 전역 69개 도로전광표지판(VMS)과 교통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교통통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침수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69개 도로전광표지판에 일일이 서로 다른 전광판 표출 형식을 감안해 ‘침수지역 진입 금지’ 등의 메시지를 입력했지만, 신규 개발되는 ‘원터치 알림 기능’을 통해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긴급 메시지를 원하는 지역 내 모든 도로전광표지판에 일괄 송출함으로써 보다 빠른 대응과 교통통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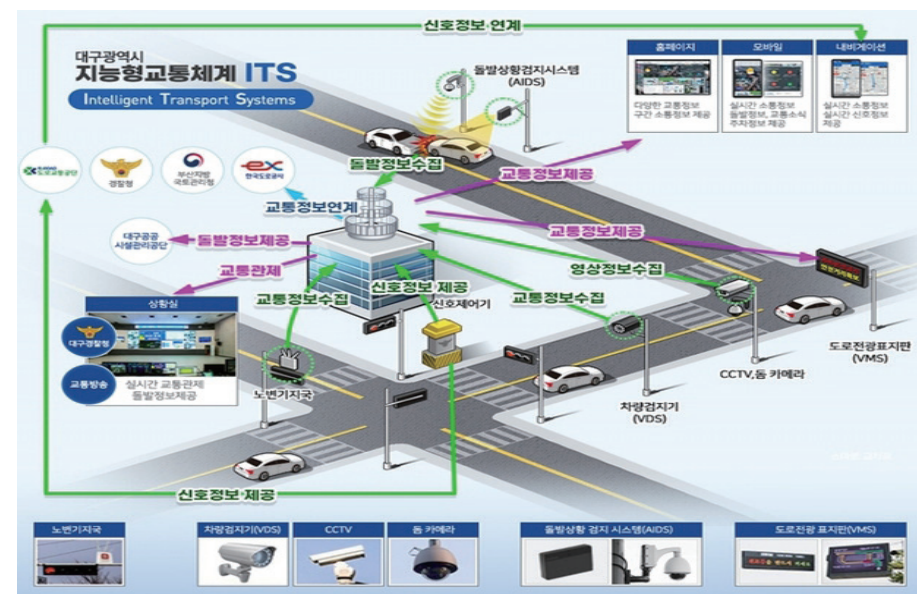
또한, 기존 대구광역시가 자체 수집하는 교통정보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한 전국의 교통소통정보가 집중되는 ‘국토교통부 ITS국가교통정보센터’의 빅데이터 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교통정보 수집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6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구간별 소요시간, 통행속도, 사고 등의 정보를 도로전광표지판 및 교통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0개소, 교통상황관제용 CCTV 7개소, 도로전광표지판 1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체계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과 ‘재난대비’이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심한 사업관리와 함께 시스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슬기로운 버스이용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콘텐츠 제작

## 부산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 담은 홍보영상 제작

부산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올해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4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콘텐츠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제작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단순히 정보전달 형태가 아닌 색다른 상황극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홍보콘텐츠 '원어의 자급자족'의 첫 편으로 게시된다.

부제인 “슬기로운 버스이용법: 기사님이 딱 보고 있다!”는 지역적 방언을 활용해 시내버스 승무원이 마지막 장면마다 “기사님이 딱 보고 있다!”를

언급해 시청자로 하여금 승무원과의 친밀감을 쌓고 웃음을 자아낸다.

일회용품기 등 음식물 반입 규정과 휴대품 허용기준, 교통카드 사용원칙 등 세 가지 규정을 설명하는 상황극 형식으로 총 영상길이는 2~3분 내외이며, 세 가지 주제별 쇼츠(shorts) 형태로도 추가 제작해 선보인다.

시 교통국(버스운영과) 직원들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함께 사적실내수영장 맞은편 버스정류장과 81번 시내버스(동원여객) 내외부 공간을 배경으로 실감 나는 연기로 촬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에 영문 자막을 새겨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홍보콘텐츠 제작은 그간 제기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담당부서(버스운영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시 버스운영과는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관련 시민들의 주요 민원(온라인 민원+전화 상담민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뉴미디어담당관 소설방송팀이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했다.



홍보영상은 4월부터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부산티브와 바다티비(TV)에 게시되며,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330곳), 부산은행 전지점 IPTV(180곳),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2천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영상을 송출해 다시 한번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운

송 수단 중 시내버스는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 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의 관광객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해 대중교통 선진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유형별·노선별·지역별 등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태/기자

#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청송 건설,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 건설.새마을 분야 414억원 투입...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

청송군은 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4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군은 건설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구축,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행복 청송 건설이라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는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우선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7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9천만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댐과 발전소 건설의 간접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행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갈 계획이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확보장, 선형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표시표지판, 옐로카펫,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예산 3억8천만원으로 광덕교(진보면), 마평교(주왕산면), 어천교(파천면) 등의 2중 시설물(연장100m 이상 교량)에 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송교(청송읍), 추강교(현동면), 송강교(파천면), 덕천교(파천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 할 것이며, 그 교량 시설도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는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샅샅이 마을지역인 안덕면 지소리, 현서면 모거리 지내 만안·두루골지구 발기반정비사업비 2,252백만원(만안지구 1,252 두루골 1,000)을 들여 양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수리시설을 설치,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농경지 54.8ha의 가뭄피해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올해 거두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74억원), 안덕면 지소리 구덕지구 발기반정비사업(18ha) 및 개

일리 고무곡지 개보수공사 등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76억원을 들여 노후된 저수지와 농업기반시설물 64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영농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실물천)에 47억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7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8억원을 투입,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태풍 카논의 피해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군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9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하천 유수지장물 및 퇴적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안길보수,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규모 가설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3건에 96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면 진보로(이촌리 방면) 구간 43개소, 부남·현동·현서·안덕면

134개소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있는 간판을 재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청송군 전역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로 시설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의 기초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 정비로 정주 의욕을 고취 시키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인구 활력 증진과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 청송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재경 청기면 향우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부

재경 영양군 청기면 향우회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이 2024년 3월 30일(토) 서울 스테이락호텔 12층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제5대 김경환 회장은 이임하고 제6대 남영진 회장이 취임하였다.

재경 청기면 향우회는 2024년 3월 30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청기면사무소에 전달하여 지역사회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3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재경 청기면 향우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짐하며 고향 발전을 염원하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고향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

고 있다. 남영진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옥선 청기면장은 “향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많은 면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며 “재경 청기면 향우회의 진심 어린 고향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경북G-star펀드로 투자 촉하기 극복한다

#### 벤처투자 1조원 펀드 조성 계획 첫걸음...중기부 모태펀드 사업 최종선정



경북도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촉하기 극복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북G-star펀드'를 조성한다.

'경북G-star펀드'는 경북도가 출자하는 모든 벤처투자펀드를 뜻하며, 도내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다.

경북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5천억 원 이상, 2034년

까지 1조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1조원 펀드 조성 계획의 첫 걸음으로 올해 1,25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G-star밸리의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북지역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경북도가 60억 원을 공동 출자한 2개 펀드가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정기 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펀드는 대경기술지주&와이앤아처(GP)가 신청한 지역창업초기펀드와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혁신벤처펀드 등이 모태펀드 209억

원을 포함 359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 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 179억원과 함께 모펀드 299억원으로 운영되며, 이는 다시 9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960억원 정도가 결성돼 올해 목표 1,250억원의 77%를 달성했다.

또, 경북도가 3월에 공동출자를 신청한 산자부 지역산업활력R&D펀드에 선정이 된다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경북도는 6개 펀드에 300억 원을 출자하여 1,555억 원을 조성 운

영하고 있고, 경북 혁신 벤처기업 139개 사에 672억원을 투자해 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경북G-star펀드 조성 목표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해 혁신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창업 혁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2024 안동평생학습 & 청소년어울림축제 성황리 마무리

#### 시민 및 학생 1만 5천여명 참여

안동시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2024 안동평생학습 & 청소년어울림축제'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동에서 꿈꾸는 인생사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개막식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청소년 락 페스티벌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평생학습체험·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개막식은 시립합창단과 YMC알핀로 제어린이요들단의 화려한 식전공연 후 개막선언 및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으로 진행됐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산에 기여한 축제 유공자로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홍미선, 이강순, 안동 YMCA의 남금화 씨가 선정됐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순서가 이어졌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에 기초한 안동시만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것을 약속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를 기념하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포식의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이 축하공연을 펼쳐 아름다운 선율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식이 마무리됐다.

개막식과 선포식 후에는 본격적인 안동시민의 평생학습 나눔과 확산의 장이 꾸며졌다. 안동사와 와플 만들기, 키팅 만들기, 친환경 소품 만들기,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등 평소 관심 있는 강좌를 체험할 수 있는 5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 중 함께 개최된 청소년 락 페스티벌에는 청소년 보컬·댄스·밴드 20팀이 참가해 각자의 개성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아 큰 호응을 얻었고, 락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한 초대가수 '래원'과 '김승민'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행사 이틀날에는 장애인 동아리와 평생학습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합창, 연주, 댄스, 수화,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9개 동아리가 평소 갖고 있던 배운 솜씨를 마음껏 뽐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학습 도시 안동, 배움과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안동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홍미선, 이강순, 안동 YMCA의 남금화 씨가 선정됐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순서가 이어졌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에 기초한 안동시만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것을 약속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를 기념하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포식의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이 축하공연을 펼쳐 아름다운 선율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식이 마무리됐다.

윤근수/기자



2024 안동 평생학습 & 청소년어울림축제

### 터치 한 번으로 만나는 봉화군청의 모든 것!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도입

봉화군이 지난 3월 28일부터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한 청사 배치도, 직원 안내도, 봉화군 관광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터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은 총 18대로 군청 로비에 비치된 통합 키오스크(무인 안내기)와 부서별 조적도 17대로 구성돼 있다.

봉화군 청사 로비 입구에 안내 통합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통해 업무 및 직원 검색, 주요 행사, 공지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봉화군 주요 관광지 소개, 군정 홍보 영상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부서별 출입문에 설치된 조적도에서는 부서 구성원의 업무분장, 연락처, 좌석 배치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

사이동이나 조직개편 시 종이 조직도를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바로 처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한국 봉화군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도입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도입

### 포항 해병대문화 축제 전국에 알린다! 홍보위원 위촉식 개최



포항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해병대전우회 연합회장단 및 경북 연합회 시군지회장을 대상으로 '2024 포항 해병대문화 축제' 홍보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송일영 대전해병대전우회연합회장 등 11명의 시도 해병대전우회 연합회장 및 경북연합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포항 해병대문화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서문사거리) 및 해병대 제1

사단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의 첫째날인 27일에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민관군 화합행진, 한·미 해병대 축하시범 공연(군악대·무적도·의장대), 개막 축하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어 28일에는 핫이슈 선발대회, 민관군 화합퀴즈쇼 '도전! 레드벨을 울려라', 화합한마당 위문열차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가 열리는 이틀 간 행사장 일원에서는 해병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각종 후원 및 대민 지원에 앞장 서준 해병대에 항상 감사하며, 올해 축제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의 장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해병대 문화를 즐기고, 볼거리의 해병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군 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영천시,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 인구정책 홍보 캠페인 실시



영천시 인구교육과는 지난달 30일 오전, 임고면에 위치한 영천댐하류공원에서 개최한 '2024년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천 주소 찾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구교육과 직원, 세정과 직원, NH농협은행 영천시 직원

#### 인구증가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50여 명이 참여 열띤 홍보에 힘썼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방기경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출산과 육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임을 홍보해 영

천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자녀 1,300만 원 ▲셋째 자녀 1,6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 1,900만 원),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부 아기사랑택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한울원자력본부, 이세용 본부장 소통 릴레이 시행

#### 이세용 본부장,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소통으로 회사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전을 만들겠다"고 밝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세용 본부장은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임기 2년째를 맞이한 이세용 본부장은 발전소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올 3,4호기 적기 건설, 한올 1,2호기 계속운전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장부서 직원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소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제1발전소 간부급 직원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각 발전소와 건설소를 순회하며 열린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세용 본부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운전 지원 등 100여 건

의 의견을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세용 본부장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회사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아울러 한울본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들의 솔선수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울본부는 2022년부터 간부 대상 '리더십 워크숍'을 시행하여 안전한 원전 운영 및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회사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사흘간 14만명 다녀가

#### 밤에는 '벚꽃 라이트쇼' 인기, 올해 첫 도입한 '벚꽃코인'은 특별한 추억 선물

경주 봄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가 3일 간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며 지난 31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행사장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측정된 결과 총 14만1220명이 축제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했다.

낮에는 버블쇼, 재즈, 서커스, 마임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거리예술 공연들이 30분 간격으로 곳곳에 펼쳐졌으며, 밤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벚꽃 라이트쇼'가 큰 호응을 얻었다.

매일 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져 밤 벚꽃을 빛냈으며, 이는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소비하는 축제로 이어졌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벚꽃이 돋보일 수 있는 공간연출은 방문객에게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경주'라는 평을 받았다.

주변 경관과 환경을 고려해 폐자재를 활용한 나무 팔레트 테이블과 도로 위 인조 잔디로 공간은 정형화된 몽골 텐트가 아닌 나무 소재를 활용한 공간 구성으로 감성을 한껏 더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벚꽃코인'은 친환경 체험을 즐기고, 먹거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경주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벚꽃코인을 제시하면 벚꽃마켓 또는 돌담길 레스토랑에서 개당 1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벚꽃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돌담길 아래 마련된 푸드트럭과 레스토랑, 벚꽃마켓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개최 전 지역 소상공인과 가격, 품질, 용량 등을 미리 협의해 합리적인 서비스와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었다.

여기에 축제장에 가이드북을 비치해

위생,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파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제장 내 무인 계측기 6대를 설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m<sup>2</sup> 당 0.6명을 초과하면 출입을 제한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릉원돌담길 500m 구간엔 음향시스템 구축으로 질서유지, 미야 발생, 비상시 경보 등의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진행해 방문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축제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또는 (재)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경주의 숨겨진 벚꽃명당의 목록과 인근 관광지, 카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축제 일정을 부득이하게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국을 대표하는 벚꽃축제로 거듭나도록 더욱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 청송군, '정책(공모과제)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청송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복 단양군 소노문 단양 리조트에서 6급 이하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정책(공모과제)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정책방향의 이해, 정책개발 및 실현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대표 등 전문 강사진이 대한민국 전반의 트렌드 변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구조의 흐름, 정부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접근법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2일 차에서는 문화관광, 골목상권 활성화, 스마트 농축산 등 8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팀별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청송군 특색 있는 사업, 진보객주시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과수 AI 예찰 및 스마트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분야별로 8개

의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직원 개인의 정책개발에 대한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과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유연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급·세대의 시각과 의견이 함께 수렴되는 정책개발 기회의 장을 최대한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발굴된 정책과제들이 청송군 발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군수/기자



### 경북도, 관련기관과 뚝뚝 뭉쳐 마린펠로이드 산업화에 나선다!

####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경상북도는 3월 29일 울진군청에서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콜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동해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해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업무협약은 △마린펠로이드 활용 상용화·산업화 연구 및 제품개발 △마린펠로이드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 지원방안 마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마린펠로이드는 동해(심해)에서 지질학적, 화학적, 물리적 과정에 의해 오랜 시간 형성된 점토를 약리적 효능 및 기능성을 갖도록 가공한 물질이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6

억을 투입해 동해안 소재는 균일 입자의 마린펠로이드를 발굴하고 화장품 원료 효능평가, 해양 치유 자원 활용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환동해산업연구원은 한국피부과학연구원(식약처 지정)에 의해 마린펠로이드의 보습, 미백, 주름 개선, 항산화, 항염 등에 관한 효능을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한국, 미국, 중국 등 화장품 생산 주요 3개국에 마린펠로이드를 원료 등록 후 마스크팩, 클렌저, 온열 크림, 에센스, 로션 등 시제 화장품 5종을 제작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결과,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2024년~2029년, 199억)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경상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울진군 해양 치유센터 내 치유 자원으로서의 활용 등으로 인해 환동해 지역의 해양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해양바이오 산업은 매년 7%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으로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우수

한 연구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환동해 지역의 해양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군수/기자

### 영덕생활문화 활성화 다함께 이야기해요

#### 2024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뜨덕' 성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뜨덕' 올해 첫 회의를 3월 29일 저녁 6시 30분 영덕새마을금고 3층에서 상황리에 개최했다.

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뜨덕'은 영덕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동호회, 문화활동가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펼치는 자리이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3 영덕생활 흥한참견'으로 시작하여 작년 까지 총 10회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영덕군의 지원을 받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열린 공론장은 2024년 첫 회의인 만큼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문화생활에 갈증을 가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열기를 더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을 설명했고 참여 주민들은 지역의 생활 문화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말 어워드를 신설했다. 이번 공론장에선 연말 어워드의 시상내역과 선정 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첫 공론장 '영덕뜨덕'에서 도출된 생생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영덕이 처한 지역사회의 열거에 대처하고 더 나은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재단의 주민 대상 문화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영덕뜨덕'에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영덕생활문화공간'의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영덕새마을금고의 협조로 문을 열게 된 '영덕생활문화공간'은 영덕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생활문화동호회의 연습실, 문화강좌 강의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영덕새마을금고 지하와 3층 전 공간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3층에는 전면 거울과 바닥 매트를 설치해서 댄스 수업이나 연습, 움직임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고 지하는 약기 연습실로 적합하다. (음량이 과한 악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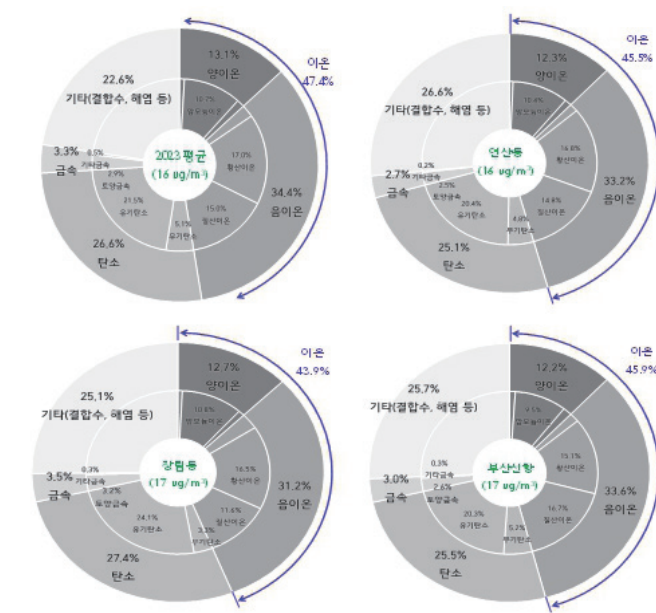
영덕생활문화공간은 영덕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요 검색창에서 '영덕생활문화공간'을 검색하거나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사이드 메뉴버튼에서 영덕생활문화공간 클릭하면 예약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장문화/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결과 발표

#### 부산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요인 중 자동차 관련 오염원이 높은 기여율 보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3년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다.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3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부산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성분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과학적으로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결과 ▲유기탄소(21.5퍼센트(%)) ▲황산이온(17.0퍼센트(%)) ▲질산이온(15.0퍼센트(%)) ▲암모늄이온(10.7퍼센트(%)) 등이 주성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장림동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탄소의 비중이 24.1퍼센트(%)로 높았고, 부산신항에서는 선박 연료 연소에서 배출되어 생성되는 무기탄소의 비중이 5.2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이온, 탄소 성분은 대체로 증가 추세나, 금속 성분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이동오염원이 전체 33.2~50.2 퍼센트(%)로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여, 자동차 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태/기자

### '안광학산업의 대혁신'2024 대구국제안경전, 4월 3일 개막!

#### 국내외 유명 안경브랜드 대거 참가, 2024 대구국제안경전 순항

2024년 제22회 대구국제안경전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 1, 2홀에서 개최된다. 디옵스는 대구광역시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안경전으로 2023년 디옵스에서는 8,000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가했다.

올해도 350개의 전시부스가 모두 매진됐으며 사전 등록된 국내외 바이어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디옵스의 명성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디옵스는 에이치투씨디자인(노운), 월트트렌드(프랭크커스터, 아이로닉 아이코닉), 팬텀옵티칼(Plume), 휴브아이웨어(Plasta), JCS인터내셔널

(CLROTTE), 정스옵티칼(VYCOZ) 등의 하우스 브랜드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어반아이웨어(NINE ACCORD), 투페이스옵티칼(Carven), 마치아이웨어(MARCH), 써드파티온(TAG eyewear), 제이에스아이웨어(M.TATE), 아이즈온(FREEHOLD) 등 유명 브랜드 기업들도 브랜드 신제품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클리너 기업인 CMA글로벌, 건영클리너 등을 비롯해 휴비스, 신일광학, 동아메디칼 등 안광학기기 및 시력검안기기 전문기업과 네오비전, 두눈아이 등 콘택트렌즈 기업들도 참가해 다양한 안광학제품들을 전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헤르조와와 중국의 러브도어, 아시아

같은 해외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글로벌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디옵스에서는 대한안경사협회 4개 시도지부(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안경사 현장보수교육을 동시에 개최해 3천 명 이상의 안경사들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중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검안행사, XR, VR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글라스 특별관, K-아이웨어 메타버스 홍보관, 소공인 특별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관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기술 혁신과 디

자인 혁신을 이끌 제품을 선정하는 'DIOPS 혁신상'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혁신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지원사업 우대, 2025 DIOPS 특별관 운영,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올해 디옵스 행사를 통해서 안광학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의 안경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제안경전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디옵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군수/기자

###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실무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 김길동)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에서 실무부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실무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실전)'에 관한 내용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공기관의 보고서 컨설팅'업체 경영연구원 박찬서 강사를 초빙해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5대 원칙, 정부지원 사업과 공모계획서 선정의 성공 노하우, 보고서 작성시 항목별 유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



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씨(91년생, 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며 "특히 기관 및 단체에서 실제 작성한 계획서 및 결

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공공위원장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종사자들의 실전 기술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윤군수/기자



# 성동구,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민원실 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방문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보호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26일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성동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인이나 주취자 등에 의해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구청 1층 행복민원실에서 진행됐으며, 사전에 부여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위협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했다.

'민원실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전에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반별 임무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숙지하여 위협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성동경찰서는 민원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과



적절한 상황개입을 통해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악성민원인 등을 적절히 진정 또는 제압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또한,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5월부터 구에서 민원접점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웨

어러블 캠)를 적극 활용하여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훈련의 일부로 포함하여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구청 행복민원실 훈련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청 및 관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악성민원은 갈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빈도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실을 방문하는 선량한 민원인들까지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역량을 배양하여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성동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관악구, 함께 누리는 여성 안전 도시 조성 위해 총력

## 관악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반 체계 가동...안심지킴이,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등 운영

관악구가 '불법 촬영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촬영 근절과 여성 안전 도시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올해 ▲안심지킴이 운영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인력인 '안심지킴이' 총 4명을 채용하여, 2인 1조로 주 3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안심지킴이는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하여 ▲공공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총 97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2월 초부터 시작했다.

또한, 구는 불법촬영시민감시단 10명을 선발해 민간개방 화장실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의식 흔적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자에게 보수 요청하여 즉시 조치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심지킴이와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외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과 ▲관악경찰서와 합동 점검 ▲교육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 지원 등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구는 주민들이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공간과 이용시설을 점검

해볼 수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 없이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7개소에서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로 활동할 대원 총 21명을 새로 선발했다. 구는 스카우트 대원의 안전을 위해 관악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험 상황 대처 방법 등 사전 교육을 마치고 안심스카우트를 운영하여 범죄취약계층의 밤길 귀가동행을 지원하고 있다.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안심이' 앱에서 사전 예약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자체 점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다방면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서울 중구의 자원순환 교육, 동국대의 수업 과정으로 활용... 중구,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 운영

## 중구, 실생활 자원순환 실천법 등 16시간 무료 교육 후 수료생 활동 지원

서울 중구가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자원순환 실천 활동과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종이팩 자원순환과 재생종이 만들기 체험 ▲쓰레기 없애기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 ▲소재별 재활용 체계 및 분리배출 방법 ▲중구 재활용 선별장 견학 등이다. 총 8주, 1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이 있는 중구민 또는 중구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이는 오는 4월 23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올해는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의 일부가 동국대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활용된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한 과정이다.

동국대학교 '소셜벤처 창업' 수강생 40여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수업

을 들으며 자원순환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수업 과정에는 중구의 쓰레기 연구소 '새롬'을 견학하고 자원순환, 쓰레기 없애기, 분리수거 등을 체험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새롬'은 중구가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쓰레기 연구소다. '새롬'은 개관 이래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주민참여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 전시 및 체험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아 많은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각기 따로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던 동국대 학생들과 중구민들은 오는 6월 14일 한 자리에서 만나 성과 공유회를 갖는다. 활동 성과를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전시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다. 중구청장이 수여하는 수료증도 받는다. 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법과 만나면서 향후 서로의 연구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성원/기자

**동국대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

교육기간 2024. 4. 30.(화)~6. 14.(금) 매주 화요일 10:00-12:00  
 교육시간 총 16시간  
 신청기간 2024. 3. 18.(월) - 4. 23.(화) / 신청 시 4. 24.(수) 개별 연락  
 참가비용 무료  
 신청대상 자원순환 실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서울시 중구민 또는 중구 소재 직장인·학생  
 참가조건 \*중구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생 발급 (수료기준 총 16시간 중 12시간 출석)  
 \*모동별 자원순환 실천활동 및 견학 등 활동 지원 (활동 계획 워크숍(2차), 자원순환 실천활동 및 견학인 활동 시 활동용구 지원)  
 신청방법 QR코드 인식 후 온라인 폼 접수  
 문의처 (사)환경교육센터 02-735-9877  
 중구 쓰레기연구소 대문 02-3396-5467

차시	일정	프로그램
1	4. 30.(화)	*오리엔테이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과 현황
2	5. 7.(화)	시민이 참여하는 종이팩 자원순환과 재생종이 만들기 체험
3	5. 14.(화)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 및 자원순환 활동 계획 워크숍 *업사이클 만들기 체험
4	5. 21.(화)	소재별 재활용 체계와 상태 및 분리배출방법
5	5. 28.(화)	알맹이 없는 리필스테이션 견학
6	5. 30.(목)	중구 재활용 선별장 견학
7	6. 4.(화)	자원순환 & 환경교육 보드게임 체험
8	6. 14.(금) (교육시간 14:00)	공동 수료·성과공유회

\*본 과정은 동국대학교와 별도 진행, 공동 수료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결연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도민 행복**

-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 강원도, '24년 상반기 광견병 방역사업 추진

## 반려동물·소 예방접종(55천마리), 야생동물 미끼예방약(306천개) 살포



강원특별자치도는 야생너구리 및 반려동물 등 광견병 감수성동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맞아 『24년 상반기 광견병 방역사업』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2,200여 건(농식품부의 개물림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야생너구리와 접충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업추진 기간 중 개, 고양이(3개월령 이상) 및 소(牛) 5만5천마리에 대한 예방접종과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30만 6천개를 살포하며,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동물을 통해 언제든지 광견병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광견병 방역활동을 통해 동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충남도, 새로운 공간정보 포털 만나 보세요!

## 도, 1일부터 부동산 정보·국토 변화 모습 등 서비스 본격 제공



전월세 가격 비교, 연속지적도·필지·면적 등 부동산 정보 △국토 변화 모습(1947년부터 항공사진) △실시간 버스 정보 △미세먼지 통계 등 도민에게 유용한 실시간 생활정보도 각종 행정정보와 연계해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태블릿·피시(PC) 등 인터넷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버스 정보는 현재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된 8개 시군(천안·아산·공주·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만 우선 서비스가 가능하며, 추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 공간정보 포털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임택민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이 새로운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충남 공간정보 포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새단장을 마친 '충청남도 공간정보 포털'을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공간정보 포털 고도화 사업은 2009년 구축한 기존 포털 사이트가 노후화돼 접속 속도 저하, 부동산 정보 제공 한계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해 나가자 추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메인 화면과 제공 정보 재구성 △각종 행정 데이터 연계 △피시(PC)·태블릿·모바일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 △위치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 등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등이다.

특히 새로운 공간정보 포털에선 △

# 충북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받아요!

## 4.1.~ 4.30.까지 농장 소재지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서 접수



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농업법인 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우, 젓소, 돼지가 해당되며 한우우, 젓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원 받는다.

제매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우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젓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및 참여현황 분석)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이행 활동을 조정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들 모두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충청북도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

#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이틀간 1만여 명 몰려

## 벚꽃 대신 채운 풍부한 볼거리·즐길 거리, 관람객 만족



아산시가 지역 대표 벚꽃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 3월 마지막 날,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열린 아산스파비스 일원(음봉면 아산온천로 157번지 67)에는 전날보다 많은 5천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전국적인 벚꽃 개화 지연으로 이번 아산시 벚꽃축제 역시 '벚꽃 없는 벚꽃축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축제 현장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 컸다.

우선 저렴하고 풍성한 먹거리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지역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지역 단체들이 먹거리부스를 운영한 덕분이다. 단체들은 잔치국수 2,000원, 육개장 4,000원, 김치전 3,000원 등 믿을 수 없는 가격과 훌륭한 맛에 준비된 음식 8,000인분

은 모두 조기 소진됐다.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치러질 것을 대비해 설치된 벚꽃 조형물 포토존 반응도 좋았다. '온천'과 '벚꽃'이 어우러진 축제 테마에 맞춰 분홍 꽃송이 대신 나무에 매달린 분홍색 때수건에 웃음을 터트리는 이들도 많았다.

축제 현장 한쪽에서는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트로트 가수 박미현, 박상민&이창민의 사진 공연(아코디언·우쿨렐레)을 시작으로 트코아모러스 4인조 클래식 △박건우 바리톤 △안유정 소프라노 △안드레 황 색소폰 △하나린 팝페라 △고석진 모듬북 공연 등 국내외 유명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온천도시 아산'에서 열린 벚꽃 축제답게,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단국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연계 진행한 건강 측정과 마사지 체험 프로그램, 지역 온천워터파크들의 할인·입장권 제공 이벤트, 온천수 활용 제품 판매 기업의 홍보 부스 등 온천을 테마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풍부했다. 서울 상암동에서 축제를 찾은 홍종선 씨는 "휴일 날씨가 좋아 드라이브 삼아 갈 곳을 검색하다 오게 됐다"면서 "벚꽃이 없어 아쉬웠지만, 벚꽃을 대신할 즐거운 볼거리가 많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김은하 씨는 "지역축제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오페라, 뮤지컬 공연을 들을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조만간 벚꽃이 피면 벚꽃과 온천을 함께 즐기러 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치르게 돼 아쉽지만, 방문객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니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중부지방 최고의 벚꽃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엔 더 즐거운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6월 개통에 맞춰 주변 연계 교통망 확충

기존 버스 노선 경로 조정하고,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 늘릴 계획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노선이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는 구성역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챙기는 한편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버스타지하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청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복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



장이 반영되어 건설되면 성남·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발전을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복선인 SRT 노선이 평택 지제~오성 구간에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SRT 수서~지제 구간도 복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 계획이 검토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를 종합적인 복합 환승 시스템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만나 SRT 복복선화와 SRT 구성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질 용인특례시에는 참으로 많은 숫자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것이므로 정부와 협의해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GTX-A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GTX-A 노선이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만큼 GTX 배차간격을 물리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SRT 수서~평택 지제 간 복복선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 구간의 복복선화가 추진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문 교통공학박사는 "GTX-A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갖춘 구성역은 향후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용인·수원 등을 배후도시로 삼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수인분당선이 있는 구성지역에 용인특례시가 복합환승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 지역은 교통허브로 변모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되므로 SRT 수서~평택 지제 구간에 복복선화가 추진되고 중간에 역사가 신설된다면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구성역이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3.1km로, 수서~동탄(4개역, 34.9km)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파주 운정~서울역(6개 역, 48.2km)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김병상/기자

##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계획(안) 발표

총연장 61.83km, 2호선 건설과 함께 행정절차 병행추진

올해 차량 발주 및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3·4·5호선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총연장 59.8km의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신규 노선 및 2.03km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실제 도시철도건설은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이다.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으로,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2호선 건설과 병행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방침에 따라 교통연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이번 도시철도망계획(안)이 우선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게 되면 지난 1996년 '도시철도 1, 2호선 기본계획' 수립 이후 28년 만에 신규노선 건설을 위해 수립하는 대전시 최초 도시철도망계획이 된다.

이날 발표된 대전시 도시철도망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59.8km 규모의 3·4·5호선 본선과 2.03km 2개 트램 지선 및 9.9km 2개 향후 검토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차량 시스템은 이용 수요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도입 가능한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결정된 노선(안)은 도시균형발전 선도, 철도연계체계 강화를 목표로 '초연결교통도시'란 '2048 그랜드플랜'을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노선 및 대안노선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교통 현황,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노선의 수정·보완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개발예정지와 구도심의 연결 등 대전시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km로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3개 계획노선 가운데 일 이용객 약 7만 5천 명으로(2031년 기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 해소를 위한 원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인 신탄진, 관평, 가오 등 주요 생활권 간 연결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 노선으로 추진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민선 8기 공약 당시 갑천, 유등천 순환 노선으로 제시됐으나 실제 이용 수요 등을 감안, 최적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상 반드시 필요한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북합터미널~송촌을 연결하는 총연장 17.9km 동서 관통 노선으로 수정됐으며, 일 평균 6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529만㎡(160만평)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 개발 촉진에 물론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장래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대전 오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km로 추진되며, 대전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해 일 평균 약 5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노선은 '교통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CTX노선(충청권광역급행철도)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실제 이용 수요도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도시철도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노선이 될 전망이다.

3·4·5호선과 이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은 연축지구~회덕역 사이 1.22km 구간, 진잠네거리~교촌삼거리 0.81km 구간으로,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 오는 2028년 트램 준공시점에 맞춰 2호선과 동시 개통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교통 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상 도시철도망계획 반영은 어렵지만 향후 여건 변화 시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덕테크노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4km 노선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신성) 4.5km는 추후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노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충청

권 광역철도 1·2단계, 대전~세종~충북 CTX,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전 주변 금산, 논산, 공주, 세종으로 도시철도 2, 3, 4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철도교통망 체계를 완성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철도망계획(안)은 올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까지 최종 정부승인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3·4·5호선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가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해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3·4·5호선 도시철도망계획과는 별개로 도안동로(가수원네거리~유성온천네거리) 6.2km 구간에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심권내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에는 시에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현지 조사를 마친 슬라시 인라인 180명, 배터리 기반의 정거장 충전 방식의 3모듈 고무차륜 트램 4대를 시범 도입해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들은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통합되어 도시 전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중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량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무궤도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의 선제적 도입, 적용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제2 도약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환경부, 환경을 위한 밑그림, '환경창업대전'으로 그려보세요

**2024 환경창업대전** 4.1.MON - 5.3.FRI

환경을 위한 밑그림

공모대상 |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사업내역 | 총 상금 3,700만원(총 12팀)

공모대상 | 녹색산업 분야 창업기업(입력 7년 이하)  
사업내역 | 총 상금 7,100만원(총 13팀)

www.eco-challenge.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은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모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모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하고,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

문자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을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4' 본선에 추천하고, 이들의 최종 우승을 위해 발표자료 작성과 연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팀에게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주어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육성할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9월 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같은 날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화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과 별개로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창업보육 전문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MeetGreen)이 되는 행사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아/기자

## 증평군, 회복탄력성(resilience) 높은 도시 만든다.

"어제의 상처를 보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도시 만들 터"

충북 증평군이 리질리언스 시티(Resilience City)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안전 분야 회복탄력성 도시 설계 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1989년 심리학자 에미 베르너(Emmy Werenner)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시련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 오르는 긍정의 힘, 다시 일어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상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증평을 교통사고 거점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인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올해는 1억원을 투자해 12개소를 대상으로 교통 약자 중심의 보도터 낮추기 사업 추진을 통해 회복력 강한 보행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5년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증평읍 장동리 607번지 일원 652㎡ 부지에는 7억5천600만원을 들여 수목과 꽃 식재, 계단과 보안등, 램프



등 설치를 통해 우범지대를 개선하는 디딤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폐지 좁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 수집인 15명에게 안전조끼, 반사 테이프, 작업 장갑 등을 지원하는 회복력 강한 안심 도시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이재영 군수는"어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분 좋은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도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힘을 가진 내일의 도시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경북교육청, 학교 '배움터지킴이실 설치 및 현대화 사업' 9억 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배움터지킴이실 설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 신청받아 신청 학교 74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학교 52교(초 26교, 중 10교, 고 16교)를 선정하여, 교당 최대 2,000만 원 총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6월 말까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학생안

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배움터지킴이실 내 방문객 인식 CCTV, 방문객 접근 감지 음성 출력 시스템, 냉·난방기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배움터지킴이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신청 학교 82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학교 27교(초 12교, 중 7교, 고 7교, 특수 1교)를 선정해, 교당 최대 2,000만 원 총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실을 점차 현대화 시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4월부터 장애 학생 직업 체험 본격 가동

###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 학생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북교육청은 4월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도내 21교의 고등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1학기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졸업 이후 자립생활과 직업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직업 체험의 경험 제공을 통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난 2019년 경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업

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 직무환경과 유사한 12종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배움 과정, 직업 체험으로 나누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 배움 과정은 12개의 직업체험관 중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관을 선택하여 직무를 탐색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6명씩 2개 조로 구성하여 2일간씩 체험하며, 직업 체험은 5명씩 3개 조로 운영한다.

장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일

배움 과정 내용으로는 바리스타, 사무보조, 가상연접 VR 체험, 유튜브 서비스, 의류매장 서비스, 세탁 서비스, 사서보조, 용역 보조, 스텝세차, 산림복지서비스 등이다.

직업 체험과정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이루어지며 시설관리, 프로그램 장소 정결 관리, 자연물 수집을 통한 놀이교구 제작, 주요 숲길, 산림복지시설 안전 점검 교육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21교, 149명의 고등학생이 체험을 신청했으며, 체험 시행 전 인권, 안전과 권익, 직무 태도, 직업 소양 등 현장실습 사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까지 철저히 교육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연간 62교, 445명의 고등학교 장애 학생을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교 현장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업 체험 훈련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를 체험하고 직무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당당히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직접 해보는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 2024 도원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원초등학교는 지난 28일(목), 전교생 26명 및 병설유치원 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ZERO"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안전교육 지도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내용을 중심으로 학년수준에 맞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규칙과 운전자 사각지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평소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이해하고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멈춘다, 본다, 손든다, 확인한다, 건넌다.' 슬로건을 직접 외치고 모형 횡단보도를 건넌으며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 방법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



면서 도원의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5학년 서○○ 학생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보니, 운전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배운 안전횡단 5원칙을 평소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겠어요"라며 소

감을 말했다.

이처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은 도원초 어린이들의 열정이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당부 말씀으로 2024년 첫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마무리하였다.

김동현/기자

## 경북일고, '신학기 즐거운 등굣길 캠페인' 운영

###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협력 운영

경북일고는 지난 27일, 아침 등교 시간에 교내 정문에서 등교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학기 즐거운 학교 등교 맞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 학업중단 예방과 생명존중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 진행은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경북일고가 협력하여 교직원, 상담사, 학생 등 700여 명이 함께하여 학생들에게 즐거운 등교 맞이 행사로 기획하여 진행되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교문 입구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간식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인쇄물을 받았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여러 선생님들과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다. 행복한 등굣길이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경북일고 박충훈 상담 교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

낼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북일고 김승태 교장은 '학교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열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김선일/기자



영주시

# 감개무량 영주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곱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출처: 최순우 저자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시

영주 부석사



#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적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43건 행정처분

서울시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



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

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자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섬'의 재발견! 노원구, 제2회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

## 왕복 7차선 도로에 자동차 비우고 자전거, 책, 장터, 식물로 '힐링' 채우는 경험

서울 노원구가 오는 13일 노원역 일대에서 '제2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핵심 상권인 노원롯데백화점 주변을 행사 당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의 가치와 일상 속 색다른 휴식을 제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작년 최초 개최 당시 7만6천여 명의 인파가 찾았다.

행사는 크게 ▲이색 힐링 체험 ▲자전거 문화체험 ▲북 페스티벌 ▲로컬 프리마켓과 베틀장터 ▲탄소중립으로 화목(花木)한 노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색 힐링 체험 존에서는 '명대리기 대회'와 '마술쇼', '버싱킹 공연'이 이어진다. 메인이벤트인 명대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경쟁하는 참여형 퍼포먼스 대회다. 노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컬 성악, 퓨전 뮤직 팀의 공연과 국내 최고의 마술 그룹 알렉산더 리의 마술 쇼도 준비돼 있다.

자전거 문화체험 존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의 특별한 모습들을 소개하며 탄소중립의 가치와 재미를 모두 선보인다. 작년 행사 때 인기를 끌었던 BMX 자전거 모기 공연과 이색 자전거 체험을 비롯해 새로이 '거북이 자전거 대회'도 열린다. '가장 늦게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이 대회는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심을 선사할 전망이다.

평소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자전거 무상 수리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착공하는 '노원 자전거 문화센터',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북 페스티벌은 '똥'을 주제로 아이들의 시선을 끌 예정이다. 마당극 '똥벼락'과 故 권정성 작가의 '강아지똥'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어린이뮤지컬이 개최된다. 빈백(bean bag), 인디언 텐트 등으로 구성된 북 쉼터 존이 마련

돼 있으며, 2024년 구민들과 함께 읽을 '노원구 한 책'을 선정하는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또한 이동 도서관 '책 읽는 버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로컬 프리마켓과 베틀장터는 '제로 웨이스트', '재활용'을 핵심 테마로 운영된다. 로컬 프리마켓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수공예 작가들이 탄소중립 생활용(up-cycling) 제품을 소개한다. 친환경 비건 식품을 준비해 비건 샌드위치, 빵, 공정무역 커피, 두부 베이글 등도 즐길 수 있다. 베틀장터에는 400팀이 참여하며,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모아 오면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돌려받는 폐자원 교환 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으로 화목(花木)한 노원'은 구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각양각색의 식물 체험과 전시가 마련돼 있으며, 노원환경재단을 비롯해 환경 관련 시설 단체가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전력 나무놀이, 분필로 도로에 그림그리기 등도 행사장 한 켠에서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한편 구는 '차 없는 거리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행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사 시 탄소중립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으며 사전 체크리스트와 현장 평가, 설문 등을 거쳐 보완해 향후 구 행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는 변화한 도로에 바뀐 일상을 상징하는 자동차를 비우고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느리지만 가치 있는 심을 채우는 대안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행사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방심 금물' 경남도, 봄철 영농시기 가금농가 차단방역 당부

## 봄철 외부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늘어 잔존 바이러스 유입 우려!

경남도는 영농시기 외부 차량과 사람의 농장 출입 증가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우려해 가금 농가에 차단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과거 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만큼 방심하기에는 이른다.

경남도는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24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지속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마을 방송, 문자·알림록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가금농가 주변 농로와 도로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해 겨울철 4개월 동안 사육 제한에 들어간 오리농가(7호)는 2단계 방역 점검과 환경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봄철 영농시기 주요 방역수칙은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로 엄격히 출입 통제 ▲영농활동을 겸업하는

축산농가는 농기계·장비 사용후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외부에 보관 ▲가금농가 내부에서는 가금적 농작물 재배 자제 ▲가금농가 주변 도로 소독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AI 의심증상 확인시 신속한 신고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막바지에 방역의 빈틈을 틈타 외부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라며 "외부 출입장비·차량의 고독, 출입자 통제, 신속한 의심가축 신고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5개 시도의 31개 시군에서 31건이 발생했으며, 경남도는 성공적인 차단방역으로 4년 만에 청정 지역을 유지했다.

특별방역대책은 3월 말로 종료하고 오는 16일부터는 평소 방역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재현/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농장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살포하여 소독  
소독구 고장시·고압분무기 2단계 소독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  
부속입구·뒷문 폐쇄  
\* 소독약만 해당사항 있음. 철저하게 준수  
\* 농장 내 야생조류 유입요소  
\* 시설 미흡한 축사(폐쇄) 폐쇄(시로 폐쇄) 등 기계·매일 청소·소독  
\* 방역·소독시(소)이 실시되지 않은 농장 부속입구 폐쇄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손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  
전실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구 내부 청소,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일기적인 실시와 제거 및 단계별 소독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고양특례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정원협회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해양치유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느리게 거어보 려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